

[휘모리]

관 공(公)¹⁾이 대희(大喜)하야²⁾ 화룡도[華容道]로 행군(行軍)한다.³⁾ 청도기(淸道旗)⁴⁾ 별엿난디, 청도(淸道) 한 쌍(雙), 홍문(紅門)⁵⁾ 한 쌍, 주작(朱雀),⁶⁾ 남동(南東) 각(角)⁷⁾ 남서(南西) 각,⁸⁾ 홍초(紅招),⁹⁾ 남문(藍門)¹⁰⁾ 한 쌍, 청룡(靑龍),¹¹⁾ 동남(東南) 각 서남(西南) 각, 남초(藍招),¹²⁾ 황문(黃門)¹³⁾ 한 쌍, 백호(白虎)¹⁴⁾, 동북(東北) 각¹⁵⁾ 서북(西北) 각, 흑초[백초(白招)],¹⁶⁾ 현무(玄武)¹⁷⁾ 북동(北東) 각 북서(北西) 각, 홍신(紅神)¹⁸⁾, 백신(白神),¹⁹⁾ 황신(黃神),²⁰⁾ 청신(靑神),²¹⁾ 흑신(黑神)

1) 공(公) : 그 사람을 높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

2) 대희(大喜)하야 : 대희(大喜)하여. 크게 기뻐하여.

3) 행군(行軍)한다 : 군대가 대열을 지어 먼 거리를 이동한다.

4) 청도기(淸道旗) : 조선 시대에, 행군할 때 앞에서 길을 치우는 데에 쓰던 군기(軍旗). 파란색 사각기로 깃발에 ‘淸道’라는 글자가 쓰여 있으며 붉은색의 화염각이 달려 있다. 깃대 끝은 창인(槍刃)으로 되어 있으며, 영두(纓頭)와 주락(朱駱)이 달려 있다.

5) 홍문(紅門) : 홍문기(紅門旗). ‘문기(門旗)’의 하나. ‘문기’는 조선 시대에, 진문(陣門) 밖에 세우던 군기. 동·서·남·북·중앙의 방위에 따라 파란색 붉은색·흰색·검은색·누런색의 바탕에 날개 돋친 호랑이가 그려져 있으며, 가장자리와 화염각은 모두 누런색이고 창인(槍刃)으로 된 깃대의 머리에는 영두와 주락이 달려 있다. 각 방위 당 두 개씩 열 개를 세웠다.

6) 주작(朱雀) : 사신(四神)의 하나. 남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짐승을 이른다. 붉은 봉황으로 형상화하였다.

여기서는, 주작기(朱雀旗). 조선 시대에, 대오방기(大五方旗) 가운데 진영의 앞에 세워 전군(前軍)을 지휘하는 데에 쓰던 군기. 빨간 바탕에 머리가 셋인 주작과 파랑·빨강·노랑·하양의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고, 화염각이 달려 있다. 깃대에 영두·주락·장목이 달려 있다.

7) 남동(南東) 각(角) : ‘각기(角旗)’의 하나. ‘각기’는 방진의 외루를 설치할 때 각 모서리[角]에 한 쌍씩 세우는 깃발로, 수효는 모두 10개를 준비한다. 색깔은 두 방위에 따라 위와 아래 각각 다른 색깔을 띠도록 되어 있는데, 동남쪽 모서리일 경우 남쪽 방향에는 남동(南東) 각기를 세워 남쪽을 상징하는 홍색을 위에 칠하고 청색을 아래에 칠하며, 동쪽 방향에는 동남(東南) 각기를 세워 동쪽을 상징하는 남색을 위에 칠하고 홍색을 아래에 칠하였다. 각 병졸은 모두 기에 따라서 진영을 이른다.

‘각기’의 시각 자료는, 『통영한산대첩축제 60년사』 (통영한산대첩축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최정규 집필, 통영한산대첩축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21)의 「제6장 부록과 사료」 (tyhansancf.or.kr/news/viewer.html?fname=ax_7778505017.pdf&num=293&orifname=%ED%86%B5%EC%98%8160%EB%85%84%EC%82%A C%206%EC%9E%A5.pdf) 1219쪽을 참고하라. 2024년 11월 17일에 검색했다.

8) 남서(南西) 각 : ‘각기’의 하나. ‘각기’의 시각 자료는, 같은 글 1219쪽을 참고하라.

9) 홍초(紅招) : 홍고초기(紅高招旗). 일명 ‘홍고초기(紅高照旗)’라 칭했으며, 남쪽 및 전영(前營)을 상징하며 홍색 바탕에 기 꼬리는 청색이다. 같은 글 1217쪽을 참고했다.

‘고초기(高招旗)’는 조선 시대에, 군대를 지휘하고 호령하는 데 쓰던 군기. 기면(旗面)은 동, 서, 남, 북, 중앙의 다섯 방위로 나누어 그 방위에 따라 파란색, 흰색, 붉은색, 검은색, 누런색으로 칠하고 팔괘(八卦)와 불꽃무늬를 그렸으며, 깃대 꼭대기에는 영두·주락·장목이 달려 있고, 영두에는 초롱이 달렸다.

10) 남문(藍門) : 남문기(藍門旗). 1쌍으로 영의 동문(東門) 밖 좌우 양편에 각각 1기씩을 세웠으며, 남색 바탕에 황색 화염각이 달려 있다. 같은 글 1216쪽을 참고했다.

11) 청룡(靑龍) : 사신(四神)의 하나. 동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짐승이다. 용 모양으로 무덤 속과 관의 왼쪽에 그렸다.

여기서는, 청룡기(靑龍旗). 조선 시대에, 대오방기(大五方旗) 가운데 진영(陣營)의 왼편에 세워 좌군(左軍)을 지휘하는 데에 쓰던 군기(軍旗). 파란 바탕에 청룡과 파란색·붉은색·누런색·흰색의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고 화염각(火炎脚)이 달려 있다. 깃대에 영두(纓頭)·주락(朱駱)·장목이 달려 있다.

12) 남초(藍招) : 남고초기(藍高招旗). 일명 남고초기(藍高照旗)라 칭했으며, 동쪽 및 좌영(左營)을 상징하며 남색 바탕에 기 꼬리는 흑색이다. 같은 글 1217쪽을 참고했다.

‘고초기’의 시각 자료는, 같은 글 1218쪽을 참고하라.

13) 황문(黃門) : 황문기(黃門旗). 주장(主將)의 영막(營幕) 앞 좌우 양편에 각각 1기씩을 세웠으며, 군점 및 수조 등의 행차 때에는 행렬의 앞에 세워 주장을 인도하기도 했다. 황색 바탕에 황색화염각이 달려 있다. 같은 글 1217쪽을 참고했다.

14) 백호(白虎) : 사신의 하나. 서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짐승을 이른다. 범으로 형상화하였다.

여기서는, 백호기(白虎旗). 조선 시대에, 대오방기 가운데 진영의 오른편에 세워 우군(右軍)을 지휘하는 데에 쓰던 군기. 흰 바탕에 백호와 파랑·빨강·노랑·하양의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고, 가장자리와 화염각은 노랑이며, 영두·주락·장목이 달려 있다.

대오방기는 조선 시대에, 진중(陣中)에서 방위를 나타내던 다섯 가지의 큰 군기. 동, 서, 남, 북, 중앙을 나타내는 청룡기, 백호기, 주작기, 현무기, 등사기 따위로 각각의 기(旗)에 딸린 부대에 명령을 내릴 때 쓰였다.

15) 동북(東北) 각 : ‘각기’의 하나.

),22) 표미(豹尾),23) 금고(金鼓)24) 한 쌍, 호총(號銃)25) 한 쌍, 나(鑼)26) 한 쌍, 적27) 한 쌍, 바래28) 한 쌍, 쇠악(細樂)29) 두 쌍, 고(鼓)30) 두 쌍, 영기(令旗)31) 두 쌍, 군뢰(軍牢)32) 층렬33) 두 쌍, 좌마(坐馬),34) 독족(蠶尊)35)이요, 난후(攔後),36) 친병(親兵),37) 교사(教師),38) 당복[塘報]39) 각 두 쌍으로 (중략)

16) 흑초(백초[白招]) : 백초(白招). 백고초기(白高招旗). 일명 백고조기(白高照旗)라 칭했으며, 서쪽 및 우영(右營)을 상징하며 백색 바탕에 기 꼬리는 황색이다. 같은 글 1218쪽을 참고했다.

‘동북(東北) 각’과 ‘서북(東南) 각’에 이어지는 기는 백초(백고초기)이고, 흑고초기(黑高招旗)는 ‘북동(北東) 각’과 ‘북서(北西) 각’에 이어진다. 「판소리 청도기 사설 연구」(배연형, 판소리학회, 『판소리 연구』 제33집, 2012) 80~81쪽 등을 참고했다.

17) 현무(玄武) : 사신의 하나. 북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짐승을 이른다. 거북과 뱀이 뭉친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여기서는, 현무기(玄武旗). 대오방기 가운데 진영의 뒷면에 세워 후군(後軍)을 지휘하는 데에 쓰던 군기. 검정 바탕에 거북이, 뱀을 감고 있는 모양과 파랑·빨강·노랑·하양의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고, 화염각은 하양이며, 영두·주락·장목이 달려 있다.

대오방기의 시각 자료는, 같은 글 1212~1213쪽을 참고하라.

18) 홍신(紅神) : 홍신기(紅神旗). 조선 시대에, 중오방기(中五方旗) 가운데 진영(陣營)의 남방에 세우던 군기. 붉은 바탕에 관 원수라는 신장과 구름이 그려져 있고, 가장자리와 화염각은 파란색이며, 영두·주락·장목이 달려 있다.

중오방기는 조선 시대에, 진을 칠 때 동·서·남·북·중앙에 하나씩 세우던 군기. 홍신기·남신기(藍神旗)·황신기(黃神旗)·백신기(白神旗)·흑신기(黑神旗)의 다섯이며, 기의 뒷면에는 그 방위에 해당하는 신장(神將)의 화상을 그렸다.

19) 백신(白神) : 백신기. 조선 시대에, 중오방기 가운데 진영의 서방에 세우던 군기. 흰 바탕에 마 원수라는 신장(神將)과 구름이 그려져 있고, 가장자리와 화염각은 누런색이다. 영두, 주락, 장목이 달려 있다.

20) 황신(黃神) : 황신기. 조선 시대에, 중오방기 가운데 진영 중앙에 세우던 군기. 누런 바탕에 왕령관이라는 신장과 구름이 그려져 있고, 가장자리와 화염각은 붉은색이며, 영두·주락·장목이 달려 있다.

중오방기의 시각 자료는, 같은 글 1214~1215쪽을 참고하라.

21) 청신(靑神) : 남신(藍神). 남신기. 조선 시대에, 중오방기 가운데 진영의 동방에 세우던 군기. 깃발에 온 원수라는 신장과 구름이 그려져 있고, 바탕은 남색, 가장자리와 화염각은 검은색이며 영두·주락·장목이 달려 있다.

22) 흑신(黑神) : 흑신기(黑神旗). 조선 시대에, 중오방기 가운데 진영의 북방에 세우던 군기. 검은 바탕에 조현단이라는 신장과 구름이 그려져 있고, 가장자리와 화염각은 흰색이며, 영두·주락·장목이 달려 있다.

23) 표미(豹尾) : 조선 시대에 쓰던 표범의 꼬리가 그려진 군기. 이 기를 세워 둔 곳에는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였다.

24) 금고(金鼓) : 고려·조선 시대에, 군중(軍中)에서 호령하는 데 사용하던 징과 북.

25) 호총(號銃) : 예전에, 열이 세 골로 된 총통에 화전을 넣어서 내쏘는 화기.

26) 나(鑼) : 우리나라 타악기의 하나. 놋쇠로 둥글넓적하게 배가 나오게 만든 악기로, 징보다는 작고 대금(大金)보다는 크다.

27) 적 : 정(鉦). 민속 음악에 쓰는 타악기의 하나. 놋쇠로 전이 없는 대야같이 만들어, 울의 한쪽에 두 개의 구멍을 내어 끈을 꿰고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음색이 부드럽고 장중하다.

참고로, 『춘향가 67장(장재백 소리책)』에서는 “호초 한 쌍, 나 한 쌍, 징 한 쌍, 바리 한 쌍, 시악 두 쌍, 고동 두 쌍”(배연형 엮음, 『춘향가 심청가 소리책』,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38쪽)으로 이 부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의 군사서인 『병학지남(兵學指南)』의 대장청도도(大將淸道圖)의 내용과 꽤 일치하여 참고했다. 물론, 중간 중간 생략된 요소도 상당하지만 말이다.

28) 바래 : 바라. 놋쇠로 만든 타악기의 하나. 둥글넓적하고 배가 볼록하며, 불교 의식에서 많이 쓴다. 한가운데 있는 구멍에 가죽끈을 꿰어 한 손에 하나씩 쥐고 두 짝을 마주쳐서 소리를 낸다. 요발, 동발, 향발 따위가 있다.

29) 쇠악(細樂) : 세악(細樂). 취타(吹打)가 아닌 장구, 북, 피리, 저, 해금 따위로 구성된 군악(軍樂).

30) 고(鼓) : 타악기의 하나. 나무나 쇠붙이 따위로 만든 둥근 통의 양쪽 마구리에 가죽을 팽팽하게 씌우고, 채로 가죽 부분을 쳐서 소리를 낸다.

31) 영기(令旗) : 군대에서 명령을 전하는 데 쓰이는 깃발. ‘승’ 자가 쓰여 있다.

32) 군뢰(軍牢) : 조선 시대에,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일을 맡아보던 병졸.

33) 층렬 : ‘층렬(層列, 층층 대열)’인 듯하다. 아니면, ‘직렬’이나 ‘측렬’일 수도 있다.

34) 좌마(坐馬) : 군대의 행진 때 대장이 타기 위하여 예비로 거느리고 가던 말.

35) 독족(蠶尊) : 독존(蠶尊). ‘독(蠶)’은, 임금이 타고 가던 가마 앞 또는 군대의 대장 앞에 세우던 큰 의장기. 큰 세 가닥 창 밑에 붉은 털 술을 많이 달았던 기로, 행진할 때에 말을 탄 장교가 대를 받들고 군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벌이줄을 잡아당기며 간다.

36) 난후(攔後) : 난후군(攔後軍). 대열의 후미를 담당하는 군사.

37) 친병(親兵) : 임금이 몸소 거느리고 지휘하는 군사.

38) 교사(教師) : ‘교사대(教師隊)’인 듯하다. ‘교사대’는, 조선 선조(宣祖) 31년(1598)에 훈련도감(訓練都監)에 두었던 특수 부대의 하나. 군대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살수(殺手) 중에서 12인을 뽑아 편성하였다. 『단국대 한자어사전』 ‘교사대’ 항목(hanja.dict.naver.com/#/entry/ccko/d682a007b90c4b27b809f5cc0533dce7) 참고.

39) 당복[塘報] : 당보(塘報) : 척후(斥候)의 임무를 띤 군사가 높은 곳에서 적의 정세를 살펴 아군에게 기(旗)로써 알리던 일.